



◀APD에서 한국 측 운영위원장 김 광현 교수가 인사 말을 하고 있다.

1978년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동안 패키지 디자이너 상호간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산업계 포장디자인의 육성 및 국제적 교류로 한국포장디자인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패키지디자인 단체로서 산업계 디자이너로만 결성된 이 협회는 기업과 사회대중에게 패키지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낙후된 디자인 분야를 개선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강력한 상품력을 지니고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디자이너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1979년 창립, 지속적인 발전

1979년 창립과 함께 창립전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회원전과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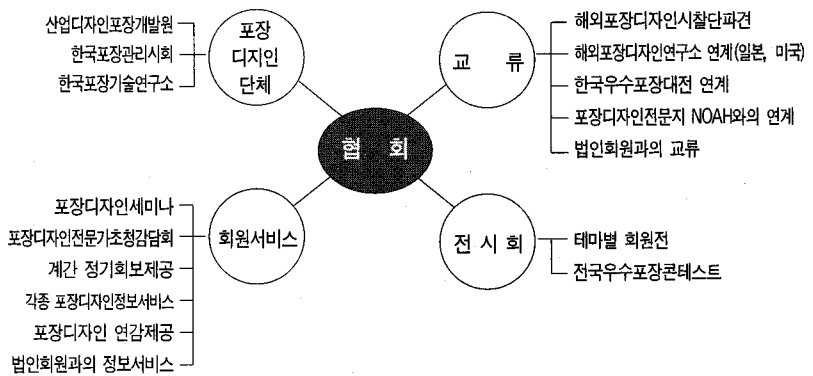
년 '제1회 한국우수포장대전'을 신설하고, 포장선진국인 일본에 해외포장디자인 시찰단을 파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월 정기총회를 갖고 젊은 패키지디자이너들이 운영단으로 구성되고 임종웅 농심 디자인실

부장이 회장으로 선출돼 활동의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임회장은 그동안 미적지근 했던 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계획에서 실천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분리 운영으로 회원의 철저한 관리, APD 참가 및 해외교류로 국제화 추진, 우

(표 2)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활동



수포장콘테스트 및 포장디자인 공모전 개최 등의 사업추진, 회원증 및 회원수첩 제작, 법인회원의 활성화 추진, 회보발간 및 총람제작 등 많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선배 디자이너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계셔 마음 든든합니다.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따뜻한 격려와 의견제시로 많은 채찍질을 해주신다면 협회는 결코 유명무실한 단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서울캐키지디자인협회가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로 공식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창립 이래 15년간 포장디자인의 꾸준한 창작활동으로 산업계 포장디자인 발전의 숨은 일꾼으로 자리했던 협회는 패키지 디자인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한 포장문화의 창달과 장차 우리나라 패키지디자인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또한 급변하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하여 전회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협회 공식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서울'이라는 지역적인 협회 명칭보다는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협회로 거듭나고, 협회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 협회 로고

있습니다.”

질적향상을 위한 교육 급선무

포장디자인 업계에 많은 문제가 산적돼 있는 만큼 협회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지금까지 포장디자인을 그저 상품의 부수물로 치부해 왔던 일부 경영인들의 인식부족이 포장디자인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어 왔다. 그외에도 포장디자인 업계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전문적인 포장디자이너 양성이 시급하다. 대기업을 통하여 최근 많은 디자이너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국내 대학에 포장디자인학과가 따로 없고 커리큘럼에 포장디자인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있을 뿐이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해야 하며 실무를 통해 배우는 길 밖에 없

다. 점점 더 세분화, 전문화되어가는 세계와 경쟁하려면 전문교수 확보와 포장디자인학과와 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93년 9월 첫째주를 정부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는 '디자인주간'으로 선정하고 포장디자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디자이너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를 마련했으나 더욱 시급한 것은 디자이너의 질적향상을 위한 각종 공모전이나 전시회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하지만 전시회가 폐지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다.

협회 명칭 변경과 새 회장으로 새 단장한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에 거는 디자이너들의 기대는 사뭇 크다. 지금까지 친목도모의 성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패키지 디자인 단체로써 변모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너무나 당차고 진지하다.

“사업추진에 있어 지금까지 계획에만 그치고 실천은 지지부진했던 협회를 '알찬협회', '가임을 희망하는 협회'로 만들어갈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임종용 회장의 모습에서 협회의 새로 변혁될 모습을 그려본다.

이선하 기자



◀ 협회 창립전

'친목단체 넘어서 발로 뛰는 협회로'

인터뷰/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임종웅 회장

젊은 패키지 디자이너가 회장으로 당선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아시아패키지디자인전을 치뤘내고 한편으로는 자축과 또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가진 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준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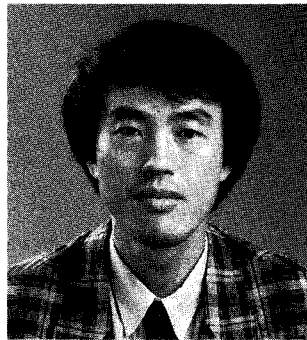
지난 10월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당선된 임종웅 회장은 농심 디자인실 부장으로 그동안 줄곧 패키지디자인협회에서 보이지 않게 발로 뛰어온 숨은 일꾼이다. 당선 이후 계속되는 일로 인해 좀 피로해 보이는 얼굴로 기자를 맞았다.

—패키지디자인협회가 지금까지는 포장업계에서 별개의 단체로써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른 단체와의 유대관계에 대한 계획은?

“사실 저희 협회가 창립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잘 모르고 계신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의 모임이다 보니 포장기술관련업계는 더욱 그렇죠. 그러나 포장에 있어서 기술과 디자인이 분리될 수 없고, 오히려 많은 교류가 있다면 완벽한 포장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점을 미루어 지금까지는 친목모임의 성격이 짙었지만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포장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여러 단체와 연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포장의 낙후가 경영인의 포장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최근 대기업들은 각기 포장디자인실을 두고 전문적으로 포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중소기업들은 포장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포장을 단순 ‘그림’으로만 보고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어떤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경영인들이 포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시아패키지디자인전이 막을 내렸는데 간단히 평을 한다면?

“아쉬움은 물론 있지만 성공적이었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4개국 디자이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의는 충분하며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한국플라에도 이 기회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특히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것이 기쁘고, 각 나라의 특징있는 제품들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만 장소가

협소했다거나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 돌아해보니 아쉽군요.”

—포장업계의 교육이 전반적으로 미진합니다. 디자인 분야는 어떠하며 바램은?

“디자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 대학에 포장디자인학과도 없어 일반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이 졸업후 현장에서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교육기회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3~4년된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나름대로 외국서적을 통한 공부나 전 부인지라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새로운 회장에 거는 기대가 큰데 앞으로 협회를 이끌어갈 계획과 각오가 있다면?

“말로만 하는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어서 결과물을 얻어 내어 알찬 협회로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총람제작, 회보발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위로 자문위원들이 계시고 운영위원들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 믿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동안의 일로 몸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선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임종웅 회장은 앞으로 할 일이 많이라며 빙그레 웃는다.